



심방세동

미래로21병원 심장내과 이상현 원장

뇌경색 발생 20% 이르는 부정맥 질환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증 등 많이 들어본 심장 및 혈관관련 질환들이 있는가 하면 심방세동·심방조동·동기능 장애·방실 차단 등과 같은 심장박동 이상을 부르는 질환은 흔히 들어보기 어렵다. 심방동 이상을 부정맥(不整脈)이라 하는데 바를 정(正)이 아닌 정돈(整頓)시에 쓰는 가지런할 정(整)을 사용한다. 정상 맥은 질서가 있는 가지런한 맥이기 때문이다.

◇부정맥=갑작스럽게 빠른 부정맥이 발생하면 환자는 불안정감과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게 되고 반대로 느린 부정맥이 발생하면 호흡곤란, 어지러움,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 두 부정맥 모두 극단적인 상태가 되면 실신 등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단순히 불규칙한 맥만 있는 경우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부정맥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처럼 발생 빈도가 높지 않으며, 생과 사를 결정하는 극적인 효과가 낮은 양성질환이 많고, 진단 과정과 용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가 대개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에 의한 것이며, 뇌경색 발생의 20%에 이르는 비교적 흔한 원인 중 하나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인 것을 알고 나면 부정맥이라는 질환이 결코 비중이 낮은 질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심방세동=심장은 심실과 심방영역으로 나뉜다. 혈액을 온 몸과 폐로 보내는 두꺼운 심실 그리고 그 혈액을 잠시 저장하는 얇은 심방, 특히 폐에서 피가 돌아오는 4개의 폐정맥이 들어오는 심방 주위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하면 다발적인 부정맥 회로가 만들어진다. 부정맥 회로가 활성화되면 정상맥을 만드는 동방결절이 부정맥에 의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350회 이상의 매우 빠른 심방의 전방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심방세동이라 한다. 심방세동은 65세 인구의 5%, 특히 85세 이상에서는 20% 이르는 발병률을 보인다. 점차 고령인구가 늘면



이상현 미래로21병원 원장이 잦은 혈전으로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한 환자를 상대로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65세 5%, 85세 20% 발생
고혈압·과음 등이 주원인
코카페인 음료도 자제를

서 질환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매우 빠른 맥박이 심실에 그대로 전달되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게 되지만 다행히도 안정 장치 신경인 방실결절이 존재해서 떨림의 일부분만 불규칙하게 심실에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심방맥의 규칙과 질서가 없어지게 된다.

심방세동이 발생하면 혈액 순환 장애가 발생한다. '좌심방이' 부위의 혈액 순환이 매우 느려지게 돼 혈전이 잘 만들어지게 된다. 혈전은 신체 어느 부위라도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뇌혈관은 심장에서 직선으로 이어져 있으며 혈액 순환의 상당부분을 받고 있으므로 혈전이 더 잘 가게 된다. 혈전

크기보다 작은 뇌혈관 입구를 막게 되면 뇌경색이라는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한다. 모든 심방세동 환자에서 심조음파로 심장의 구조적인 이상과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심방세동의 원인과 치료=심방세동은 질환(고혈압, 심혈관 및 판막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 등), 노화, 과도한 음주, 기타 원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65세 이상에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맥 측정이 필요하다. 진단은 심전도로 하게 된다.

하지만 심방세동이 지속되지 않는 발작성의 경우 병원 방문시 심전도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진단 시기가 시간이 필요하며 첫 증상이 뇌경색과 관련된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심방세동이 지속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을 경우도 있으며, 방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치료의 경우 심장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정상맥을 유지할 것인가, 부정맥을 그대로 두고 심부전예를 위해 맥박수만 조절할 것인가를 정하고(물론 정상맥을 유지하면

좋다, 하지만 그만큼 정상맥 유지가 어렵다), 두 군 모두 가장 위험한 혈전성 질환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발작성으로 두근거림 증상이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항 부정맥 약물을 6개월 이상 투여하고, 그러고도 증상이 나타날 경우 부정맥 발생 부위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

혈전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혈전성 뇌경색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는 와파린 등의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거나 전문의 판단에 따라 아스피린 등의 항혈소판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질환을 잘 조절해서 심장의 구조적인 변성을 막고 동반 혈관 질환의 진행을 억제해야 한다. 술은 삼가고 커피 등은 하루 한 두 잔 이내로 조절이 필요하며, 고카페인 음료를 삼가야 한다.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건강한 심장 기능을 유지하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보라안과병원, 노안교정센터 개소

생체 친화적 교정술

'레이드롭 인레이' 도입

보라안과병원(대표원장 김정용)이 노안 교정센터를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스마트폰의 생활화, 잦은 근거리 작업 등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노안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40대에도 노안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라안과병원 노안교정센터는 지난 2002년에 LTK노안수술을 호남 최초로 시작해 10년이 넘는 축적된 수술 노하우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인 맞춤형 노안수술을 지

향하고 있다. 보라안과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및 인증의료기관으로서 호남지역 유일한 망막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엔 진료를 시작한 노안교정센터는 임상결과가 우수한 '레이드롭 인레이'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레이드롭 인레이'는 미국 노안치료 전문 기업 리비전 옵틱스(ReVision Optics)가 개발한 생체 친화적인 노안교정술이다. 근거리 시력은 물론 기존 노안수술로는 개선

효과가 미비했던 중간거리 시력도 향상시킨다. 또 기존 수술의 단점이었던 원거리 시력감소를 최소화 한 수술법이다.

이 외에도 백내장과 노안을 함께 교정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노안 다초점 라식, 노안 콘택트렌즈 등 수술적, 비수술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개인의 맞춤형 노안교정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생명의 씨앗' 장기기증 - 소아 조혈모세포이식

백혈구 생착 2주, 제대혈 이식 3주 소요

조혈모세포는 혈액 성분을 만드는 어머니세포로 골수에 많이 존재하며, 말초혈액과 제대혈에도 존재한다. 조혈모세포이식은 병들어 있는 환자의 골수를 고용량의 항암제와 방사선으로 제거한 후,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예전에는 골수이식으로도 불렀다. 조혈모세포이식에는 동종이식과 자가이식이 있다.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조혈모세포이식은 이식 전처리 과정, 조혈모세포의 채취 및 주입, 생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처리과정이란 고용량의 항암제나 방사선 조사를 받는 것으로 이식 전에 암세포를 없애며, 또한 이식받는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골수 내 공간을 마련하는 위해 시행된다. 조혈모세포의 채취는 양측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한다.

말초혈기증자는 일반 수혈의 과정과 유사하다. 다만 충분한 조혈모세포를

를 다시 주어야 한다. 또한 이식 후 100일 정도 지나면 몸이 건조해지거나 관절이 뻣뻣해지는 후기 합병증인 만성이식편대속주반응이 올 수 있다. 이때에는 면역억제제가 도움이 된다. 조혈모세포이식이 잘 되어서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면역기능이 회복되는 이식 후 6개월에서 1년까지는 감염 예방이 중요하다. 이식 후 6개월 정도는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야외에서는 햇빛에 오래 노출되지 않게 신경을 쓰며,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학교는 6~12개월이 지나고 다른 합병증 등이 없다면 갈 수가 있다.



이재희 교수

또 음식도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중에는 가능한 모든 익혀 먹어야 하며, 과일이나 야채는 껍질을 벗긴 후 먹을 수 있다. 위생관리도 중요해 매일 손바닥을 사용하고, 샤워를 하고 좌욕과 기침은 이식 후 3개월까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조혈모세포이식 후기 합병증으로 성장이 나 내분비계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퇴원후에도 감염 예방 중요해

6개월간 사람 많은 곳 피해야

연기 위해서 이식 전 약 4~5일부터 백혈구 성장인자를 주사 맞은 후 1~2일에 걸쳐서 말초혈을 통해서 조혈모세포를 얻을 수 있다.

생착이란 환자에게 주입된 조혈모세포가 골수에 잘 정착을 해서 정상적인 혈액세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보통 백혈구가 생착되는 데에는 2주 정도, 제대혈 이식은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합병증과 퇴원 후 관리=조혈모세포이식에는 감염, 급성이식편대속주반응, 출혈, 생착실패 등의 합병증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감염은 이식 전에 시행 받은 전처리로 인해 백혈구가 감소한 상태에서 각종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의 감염이 예방을 위한 제제를 사용한다.

이식편대속주반응은 기증자에게서 받은 혈액세포가 환자의 몸을 공격해 발진, 간기능 이상,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생착실패란 환자가 받은 조혈모세포가 생착을 하지 못하고 몸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이때에는 새로운 조혈모세포

를 하고 좌욕과 기침은 이식 후 3개월까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조혈모세포이식 후기 합병증으로 성장이 나 내분비계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조혈모세포이식의 성공률=성공률은 환자의 질환, 질병의 상태, 기증자와 환아 조직 일치율 등에 따라 다양하다. 재생불량성빈혈은 형제간 이식을 한 경우에는 9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비혈연 이식도 70% 이상의 치료율을 보인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여러 소아암이나 희귀 질환이 걸린 환자의 중요한 치료법으로 성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에게 줄 알맞은 조혈모세포가 없다면 시도조차 할 수가 없다. 과거보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관심도 많아지고 기증자의 수도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며 특히 자녀가 1~2명인 가족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사회의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도움말=조선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재희 교수>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NAVER 광주 소리큐

광고심의회 2012-10-18-1328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핸드폰 통화할때
강의들을때 대화·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소리큐보청기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

즉석요리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스퀘어점

유생존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워터, 쥬스)

프리미엄 최상급 양념
· 풍부한 육즙
· 부드럽고 이국적인 맛
· 송이버섯과 치즈와 자른 허브 육성
· 최첨단 무공해 신선농산물

즉석요리

얼리치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랑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 아이엘리시아)